

국악으로 전통혼 계승... ‘하늘과 땅을 잇다’

제11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24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호남 전통예술인 150인 추모
김지원 국악인 등 40여명 출연
원로·중견·신예예술인 한자리

국악의 뿌리를 잇는 공연으로 오랜 기간 감동을 선사해 온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창립 36주년을 맞은 동국예술기획은 ‘하늘과 땅을 잇다’라는 주제로 오는 24일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제11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개최한다.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1990년 11월 국립국악원에서 첫 막을 올린 뒤 36년간 꾸준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국내 유일의 전통예술 무대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전통의 원형 보존과 전승’이라는 가치를 지켜온 이 공연은 이제 전통 예술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대로 성장했다. 특히 원로와 중견, 신예 예술인들이

한 무대에 올라 시대를 넘어 함께 호흡하며,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이뤄내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해 관객들의 만족도도 높다.

이번 공연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협업 무대로 구성됐다. 살풀이춤, 신민요, 남도시나위합주 등 전통 예술의 정수가 영상과 결합해 입체적으로 꾸며져 관객들을 만난다.

공연은 △남도시나위 △향발무 △초립동 △강선영류태평무 △수견입춤 △상주아리랑·홀로아리랑 △가사호접 △진쇠춤 △심정가중 △살풀이춤 △남도민요 순으로 펼쳐진다.

출연진으로는 김지원 단국대 교수, 오정해 국악인, 김청만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김선이 광주시 무형유산 보유자, 한민정 강선영류 태평무 이수자, 채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이 나서며 이 밖에도 이수향, 정현숙, 허순선, 김영옥, 박아림 등 40여명의 원로 및 중견 무용가가 참여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공연의 예술총감독은 박동국 동국예술기획 대표가 맡았다. 기획은 정치희 기획

이사, 해설은 오정해 배우가 함께한다.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민간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 36년간 150개 종목, 70여 곳의 공연장에서 3500명의 인원이 함께 했고 미국, 중국, 일본, 몽골 등 해외에서도 활발히 공연을 펼치며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로 전파했다.

아울러 고(故) 김천홍, 박동진, 김계화, 공옥진, 이매방, 이은관, 김월하, 박귀희 등 전설적인 예술인들이 이 무대를 통해 혼을 불태웠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공연을 통해 호남지역의 전통예술인 150인을 추모하고, 전통과 예술혼을 계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국 동국예술기획 대표는 “이번 제11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에서는 무형유산의 초석을 위한 민족의 한과 설움을 노래와 춤으로 승화한 공연을 선사할 것”이라며 “이색적인 협업 공연도 준비됐다. 봄의 감성이 흐르는 광주에서 많은 시민이 찾아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김지원 단국대 교수. 동국예술기획 제공

우리 전통춤으로 무대를 꾸미다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김영희 전통춤이론가 초청
23일, 진도 옥주골 창작소

국립남도국악원은 진도 옥주골 창작소에서 오는 23일 강의로 김영희 전통춤 이론가를 초청해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무대를 선보인다.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는 국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미를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또는 유명 인사를 초청해 인문학과 국악을 접목한 강의형 공연 형태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영희 강의자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우리 전통춤’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김영희춤연구소 소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한국춤비평가협회 전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선 순조 시기에 탄생한 궁중정재를 이야기하며 효명세자가 직접 지은 창사를 노래한다. 1828년 초연 이후 궁중에서 널리 사랑받은 ‘봄날 꾀꼬리가 지저귀다’라는 의미를 담은 궁중무를 소개한 뒤 우리나라의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던 민속춤인 고성오광대놀이 제1과장 탈춤도 함께 다룬다.

아울러 진주권번의 마지막 명인 김수악 선생으로부터 전승된 영남의 대표 입춤도 소개한다. 경남무형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는 이 전통춤들은 김영희의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더욱 생동감 있는 무대를 꾸밀 전망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미취학 아동은 입장 제한된다. 공연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선착순 30명까지 전화로만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jindo.gugak.go.kr>) 또는 장악과(061-540-4038)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4월 미래 과학자들의 생일파티’ 성료

국립광주과학관·광산구가족센터 협력
지난 12일 생일파티·교육·전시 체험 등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생일 파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12일 광주광산구가족센터와 협력해 ‘4월 미래 과학자들의 생일파티’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광주과학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열렸다.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된 광주광산구가족센터 소속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초청해 진행됐다.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어린이과학관 호기심 놀이터에서 특별한 생일 파티를 즐겼다. 점심 식사 후 특별 교육프로그램과

상설전시관 해설을 체험했고 준비된 선물을 받고 환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행사를 준비한 이재영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실 연구원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과학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과학 문화를 널리 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매달 진행되는 ‘미래 과학자들의 생일파티’는 지난해 새롭게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생일을 맞은 어린이들이 전시관의 파티룸에서 특별한 생일파티와 함께 교육, 전시 해설, 체험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예약 일정 등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12일 광주광산구가족센터와 협력해 ‘4월 미래 과학자들의 생일파티’를 개최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재)광주비엔날레, ‘GB 작가탐방’ 본격 시작

사전 간담회·첫 프로그램 성료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기대

(재)광주비엔날레 마케팅교육부는 지난 4일 ‘GB 작가탐방’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14일 (재)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올해 ‘GB 작가탐방’에 참여할 10명의 작가(김설아, 김신운주, 노유승, 박지호, 신호운, 윤준영, 이인성, 임수범, 정명숙, 천영록)와 4명의 협력공간(뽕뽕브릿지, 예술공간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스페이스 DDF) 대표 등이 참석해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방식과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GB 작가탐방’은 광주·전남을 기반

으로 활동하는 작가의 작업 세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14일 박지호 작가와 함께 광주 동구 예술공간집에서 진행됐다. 아티스트 토크에서 몸을 확대된 덩어리처럼 화면에 채워 그려 인간의 서사와 삶의 내면을 조망한 박 작가의 작업세계를 들여다봤다.

박 작가와의 대화는 비영리 큐레토리얼 프라이머리 프랙티스(Primary Practice)의 김성우 큐레이터가 함께했다.

한편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성을 도모하는 ‘GB 작가탐방’은 올해 11월까지 매달 1회 이상 다양한 작가들과 함께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